

『변방에 우짖는 새』에 나타난 민중의 기억

김 수 미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수료

이 글에서는 현기영 장편 『변방에 우짖는 새』에 나타난 민중의 기억을 항쟁의 배경, 항쟁의 성격, 항쟁의 주체 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방에 우짖는 새』에는 공식역사에서 배제되었던 제주의 방성칠란과 이재수란에 대한 민중의 기억이 드러나 있다.

둘째, 항쟁의 배경 중 사회·경제에 대한 기억에서는 당시 나약한 국가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세폐의 문제로 민중들에게 영향을 끼쳤음을 살펴보았다.

셋째, 종교에 대한 기억에서는 이재수란의 중심에 천주교가 주된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유입된 봉세관과 천주교회의 세력화 과정이 빚어낸 항쟁의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반외세적인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항쟁의 성격에서는 제주도민의 저항의식과 항쟁의 전통이 민중의 기억을 통해 전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변방에 우짖는 새』는 4·3의 전사(前史)로 제주의 항쟁 전통을 그려내 제주역사의 연계성을 탐구하고 있다.

다섯째, 항쟁의 주체에서는 이재수를 민중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보았다.

여섯째, 현기영은 민중의 시각에서 제주역사의 의미를 찾으며 촌로들의 증언과 이재수 설화를 문화화함으로써 항쟁의 현장과 제주민중을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

역사적 사건을 문화적으로 재현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으며, 묻혀져 있던 제주역사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변방에 우짖는 새』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변방에 우짖는 새』에 나타난 민중의 기억

1. 들머리
2. 『변방에 우짖는 새』에 나타난 민중의 기억
3. 마무리

1. 들머리

현기영의 장편소설 『변방에 우짖는 새』(1983)¹⁾는 왕조 말기의 제주에서 3년 간격으로 일어난 방성칠란(1898)과 이재수란(1901)²⁾을 다뤘다. 전 도민이 봉기했던 이 민란들은 『변방에 우짖는

1) 『변방에 우짖는 새』는 1981년부터 1982년까지 월간잡지 『마당』에 연재된 장편소설로, 1983년 창작과비평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이를 작가가 개작한 동명의 희곡 『변방에 우짖는 새』(『외국문학』, 1986 가을호)는 1987년 5월 극단 연우무대에 의해 각색되어 김석만 연출로 서울 문예회관에서 공연되었으며, 1999년에는 박광수 감독에 의해 <이재수의 난>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2) 1901년 5월 6일부터 6월 11일에 걸쳐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민간에서는 ‘이재수란’이라고 가장 많이 불린다. 역사학계에서는 ‘1901년 민란’, ‘1901년 제주항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천주교 측에서는 ‘제주도 신축년 교난’, ‘신축교안’ 등으로 불린다. 최근에는 1901년 제주항쟁기념사업회가 발족되면서 ‘신축제주항쟁’라 명칭하며 문화기념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기영의 소설 표현에 따라 ‘이재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신축제주항쟁(이재수란)’은 조선 왕조와 서구 열강인 프랑스까지 개입된 근대사의 세계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발생 100년이 되도록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다가, 2001년 제주의 뜻있는 학자와 예술가, 지식

새』를 통해 문혀진 역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다. 소설이 발표되기 이전의 남학당과 이재수란에 대한 연구는 천주교측의 논문 몇 편이 있었을 뿐이었다. 작가는 당시 을미사변의 연좌로 1897년 제주섬에 귀양가서 두 민란을 차례로 겪었던 “한말(韓末)의 거물 정객 김윤식의 『속음청사』를 근본 사료로 하고, 천주교측이 공개한 신부와 주교의 서한문, 황성신문, 민간에서 취재한 촌로의 증언 등을 참고”³⁾하여 민중의 시각으로 문혀진 역사를 문학의 장으로 끌어냈다.

현기영은 「책머리에」에서 “민란이 있게 한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병리현상을 찾아내고, 그것을 국사의 문맥에서 파악해보려는 것이 이 소설이 지닌 최대의 의의일 것이다.”⁴⁾라고 말한다. 문학적 가치 판단을 유보하는 대신에 작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사료들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일단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된 사료는 권력의 주체가 바뀌지 않는 한 본래의 지위를 회복하기가 어렵다.”⁵⁾ 현기영에 의해 발굴된 사료와 증언의 문학화를 통해 제주에서 일어난 민란들은 역사적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는 작품에는 사건을 기억하고 해석하

인들에 의해 ‘1901년 제주항쟁(이재수란)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100주년 기념행사를 펼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되었고 이후 매해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2002년에는 기념사업회와 천주교 제주교구가 합의한 ‘화해와 상생을 위한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기념사업회는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당시 천주교인들에 대한 인명살상을 사과했고, 천주교 제주교구는 제주교구장의 명의로 사건 당시 천주교가 제주도민에게 행한 교회의 잘못된 역할과 행위에 대해 도민사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이는 사건 발생 102년 만에 역사적인 대화합의 단초를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3) 현기영, 「책머리에」, 『변방에 우짚는 새』, 창작과비평사, 1983, 4쪽.
- 4) 위의 글, 4쪽.
- 5) 정호용, 「한국문학과 극단의 상상력」, 『한국문학의 근본주의적 상상력』, 프레스21, 2000, 33쪽.

는 작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역사자료에 문학적 상상력과 민중의 목소리를 보태어 사료 속 인물과 사건들에 생생한 실감을 불어넣은 『변방에 우짖는 새』에는 역사가 담아내지 않은 집단의 역사적 체험이 제주민중들의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난다. 민중의 기억을 통해 바라보는 사건은 엘리트중심주의의 역사적 시각에서 민중적 입장으로 사건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찰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사회학에서 최초로 기억의 문제를 거론한 알박스는 “우리의 과거관이란 현재적 문제해결의 욕구로써 채색되며 집합기억은 본질적으로 현재적 고려에 준거한 과거의 재구성”⁶⁾임을 강조했다. 역사소설은 현실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과 비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한다. 『변방에 우짖는 새』의 저술배경에 4·3이라는 금기된 역사를 언급할 수 없었던 1980년대 군사정권의 언론탄압과 작가의 필화사건이 있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작가가 방성칠란과 이재수란을 4·3의 전사(前史)로 다뤄 군사정권의 폭압정치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변방에 우짖는 새』를 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변방에 우짖는 새』에 대한 기존의 논의⁷⁾들은 민중의 관점

- 6) 김영범,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사회과학연구』제 6집 제3호,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9, 584쪽.
- 7) 『변방에 우짖는 새』를 두고 민현기는 민중의 잠재적 힘을 새롭게 인식시킨 점에서 가치 있게 평가하였으며, 인물의 추상성을 한계로 들었다(『역사적 하강기의 불행한 삶』, 염무웅 편, 『한국문학의 현대성』Ⅲ, 창작과비평사, 1984). 최원식은 구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수란을 제주도 민중의 관점에서 복원한 80년대 가장 중요한 역사소설의 하나라고 평가했다(『현기영의 역사소설』, 『우리시대 우리작가』 22, 동아출판사, 1987). 채광석은 민족사의 흐름을 살피는데 전형적인 틀을 제공한 이 작품이 특히 민란에 대처하는 각 계층의 태도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민족문학의 흐름』, 한마당, 1987). 이동하는 저항적 인물의 행적을 민중적 역사소설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하였다(『역사적 진실의 복원』, 『작가세계』, 세계사, 1998, 봄). 정호웅은 이 작품이 사료 속 인물과 사건에 생생한 실감을 불어넣고 제주도 백성들의 현실을 구체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동하는

에서 복원한 역사소설로서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역사에서 배제되었던 민중의 기억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 되었는지, 민중의 기억이 어떤 식으로 담론화되어 구전되어왔고, 촌로들의 증언과 설화들이 현기영의 역사소설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 왔는지에 주목하거나 『변방에 우짚는 새』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작품론은 몇몇 논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변방에 우짚는 새』를 중심으로 이재수란의 과정에서 드러난 민중의 기억을 항쟁의 배경, 항쟁의 성격, 항쟁의 주체로 분류해 분석하고, 민중의 기억문화가 어떻게 소설 속에서 재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민중 담론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민중의 기억에 주목하여 이재수란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과 과거 민중들이 국가의 폭압과 외세의 압력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

인물의 창조로써 한 시대를 총체적으로 담아내는 역사소설의 이상에 근접했다고 보았다(근본주의의 역사적 의미, 『작가세계』, 세계사, 1998, 봄).

김영화는 현기영의 『변방에 우짚는 새』와 『바람타는 섬』이 역사에서 제거된 사실을 소설로 형상화해 전국의 독자에게 알린 점과 제주역사 연구의 활성화를 가져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제주 역사와 문학』, 『변방인의 세계』, 제주대학교출판부, 2000). 고명철은 『변방에 우짚는 새』가 봉건주의의 병폐와 제국주의의 위협이 가장 극명히 점철된 제주도의 제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했으며, 제주도 역사의 맥락 속에서 자생적으로 존재해온 장두를 소설 텍스트에서 되살리고 있다고 본다(『변방에서 타오르는 민족문학의 불꽃』, 『쓰다의 정치학』, 새움, 2001). 허남춘은 설화·전·소설에 반영된 이재수란을 살펴보고 있다. 민중의 설화는 각기 입장에 따라 다른 서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천주교의 황포에 맞선 영웅 이재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인다(『설화·전·소설에 수용된 제주 민중항쟁과 이재수』, 『반교어문연구』 제14집, 반교어문학회, 2002). 김동윤은 신축제주항쟁이 설화, 실기, 소설, 시, 희곡 등 다양한 장르로 문학화된 양상을 살피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했다(『신축제주항쟁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과 그 과제』, 1901년제주항쟁기념사업회 엮음, 『이재수야 이재수야 ; 신축제주항쟁자료집Ⅱ-문학편』, 각, 2004).

는 역사적 현실을 다시 생각해보고, 제주 역사문학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변방에 우짖는 새』에 나타난 민중의 기억

『변방에 우짖는 새』에는 구한말 격변기 제주도에서 발생한 방성칠란과 이재수란을 겪는 당시 민중의 삶이 생생한 모습으로 담겨 있다. 고종 광무 2년에 발생한 방성칠란은 남학당(南學黨)⁸⁾과 제주도민이 힘을 합쳐 일으킨 민란이다. 또한 이재수란은 반식민지적인 한반도 정세 하에서 프랑스 천주교의 교세확장과 그에 따른 폐단, 광무정권의 조세수탈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재수란은 “1900년 전후 발생한 단일 민중항쟁으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고양된 사건이었다. 특히 천주교인과의 무력충돌로 600여 명의 천주교인이 사망하고 프랑스와의 국제적인 외교사안으로까지 비화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⁹⁾

이재수란은 『변방에 우짖는 새』가 발표되기 전까지 천주교 측¹⁰⁾과 국가에 의해 제주민중의 폭력적 봉기로 발생한 천주교측의 희생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재수란은 공식역사에서 누락된

8) 남학당은 1894년(고종 31)에 발생한 동학혁명운동(東學亂) 이후, 제주도에 들어와 대정현 광청리 일대에서 火田농사를 지었던 종교단체로, 제주도민들이 느끼고 겪는 여러 폐해를 직접 경험하였다. 따라서 남학당이 민란 과정에서 제시한 목표는, 현실에 나타난 민폐를 제거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방향 설정은 제주도민 입장과 동일한 것이었다(권인혁, 『19세기 제주도민의 생활상과 민란 추이』, 1901년 제주항쟁기념사업회 엮음, 『진실과 화해』, 각, 2003, 56-58쪽, 참조).

9) 김양식, 『1901년 제주항쟁의 발생과 전개과정』, 1901년 제주항쟁기념사업회 엮음, 『진실과 화해』, 각, 2003, 60쪽.

10) 교회측 연구는 천주교인들이 박해받았던 역사로 평가하고 있는데, 김옥회는 민란을 일으킨 제주도민들을 폭도라고 표현하며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태도를 일관하면서, 천주교 신자들을 희생자로 보고 있다(김옥회, 『제주도신축년교난사』, 태화출판사, 1980).

망각의 영역이었고, 이재수란에 대한 기억도 왜곡되어 있었다. 때문에 제주민중들은 자신들이 겪은 사건을 개인적인 기억으로 구술해 왔는데, 이재수란에 대한 설화는 채 100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민중의 기억 속에 자리잡았다. 알박스는 '기억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의미에서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집합기억의 일차적 소재는 직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알박스는 구술사도 집합기억의 주요 소재로 간주하였다.'¹¹⁾

국가에 반발한 민란으로 매도되어 역사에서 배제되고 누락되었던 이재수란을 공개적인 지평으로 이끌어내는데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현기영의 『변방에 우짚는 새』이다. 이 작품이 발표되면서 이재수란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었다.

현기영은 방성칠란과 이재수란을 중심으로 당시 민중이 겪어야만 했던 국가적인 위기, 삶의 곤궁, 관에 의한 수탈,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권력의 압박, 외세에 의한 종교적·문화적 충돌 등을 민중의 목소리를 통해 형상화한다. 민중의 기억 속에는 사회구조의 문제점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삶의 방식을 바꿔가는 지가 담겨져 있다.

이 장에서는 『변방에 우짚는 새』에 나타난 민중의 기억들을 항쟁의 배경, 항쟁의 성격, 항쟁의 주체로 나누어 민중의 집단기억 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기억이란 본래 집단기억으로 존재하며 의사소통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분배된다. 작가가 민간에서 취재한 촌로들의 증언과 '이재수에 관한 설화들'¹²⁾은 작품 속

11) 김영범, 앞의 글, 1999, 577쪽.

12) 「고도체비(정태무 구연, 진성기 채록, 1957)」, 「신축년 난리(강덕염 구연, 진성기 채록, 1958)」, 「성당우력(김원형 구연, 진성기 채록, 1958)」, 「이기선광 업가(김만권 구연, 진성기 채록, 1960)」, 「성교 난리(양형회 구연, 현용준 채록, 1980)」, 「이재수 이야기(송경은 구연, 현용준·현길언 채록, 1981)」, 「성교난(聖敎亂)(양원교 구연, 현용준·현길언 채록, 1981)」, 「이재수(李在秀) (김재현 구연, 현용준·고광민 채록, 1981)」, 「이재수난 I(김승추 구연, 김영돈·김지홍 채록, 1984)」, 「이재수난 II(장덕

에서 당시 사건에 대한 민중의 기억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작품 속에서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제주민의 집단기억이 어떤 양상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 항쟁의 배경에 대한 기억

『변방에 우짖는 새』는 모두 17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은 전체의 프롤로그라 할 수 있고, 제주민중의 수난사를 그려내면서 유배문화로 인식되어 온 제주도에 대한 통념을 역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2장부터 7장까지는 무술년의 방성칠란에 관한 부분이다. 방성칠란은 남학당이 주축이 되어 거남운동을 벌였는데, 별국을 건설하겠다는 그들의 야심은 좌절되었다. 8장부터 17장까지에서 신축년의 이재수란을 다루고 있다. 이재수란은 방성칠란처럼 세월에 항거하여 일어난 난이지만 전개과정 속에서 교폐와 양반들의 탐학까지 처단하려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 절에서는 당시 민중들이 사회·경제적 상황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살펴보고, 제주민중의 반봉건 의식을 다뤄보고자 한다.

제주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유가적 가치관과 여성의 무속신앙이 혼재하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공간에 외부종교인 천주교가 유입되면서 전통적 종교관과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이재수란은 제주도민과 외부종교의 마찰, 봉세관의 작폐와 봉세관을 도운 천주교도들에 대한 제주민중의 반감에다 기존 징수세력들인 지방 토호들이 상무사를 조직하여 힘을 보탤고, 유생들까지 가담

기 구연, 김영돈·윤치부 채록, 1984), 「이재수난Ⅲ(오술생 구연, 김영돈·변성구 채록, 1983)», 「이재수난Ⅳ(양기빈 구연, 현길언 채록, 1981)», 「이재수난Ⅴ(고경송 구연, 현길언 채록, 1983)», 등 13편의 설화는 『이재수야 이재수야 ; 신축제주항쟁자료집Ⅱ-문학편』(1901년 제주항쟁기념사업회 엮음, 각, 2004, 17-79쪽)에 수록되어 있다. 설화의 반영은 이재수란에 대해 반복적으로 환기하던 제주민중들의 구전행위가 제도권 문학의 틀 안에 수용된 것이다.

한 복합구조적인 양상이었다. 즉, 이재수란의 배경에는 기존의 공동체적 문화를 위협하는 천주교에 대한 제주민중의 사회경제적·문화적·종교적 반감이 작용하고 있다. 외부로부터 유입된 봉세관과 천주교회의 세력화 과정이 빚어낸 항쟁의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반외세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1) 사회·경제적 배경과 반봉건

소설은 시작부터 제주민중의 곤궁한 삶을 묘사하고, 나라안팎의 위기를 묘사하면서 난이 일어나기까지의 전조를 이야기하고 있다. 당시는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일본 그리고 구미 열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수난의 연속이었다. 나약한 국가의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왕실의 무능과 횡포, 외세의 내정간섭 등의 국제적인 상황은 세계의 문제로 민중들의 삶에 직결됐기에 왕실이나 국가, 외국에 대한 민중의 의식은 긍정적일 수가 없었다.

관리의 수탈 문제는 민중의 삶을 억압하고 끝내는 봉기를 일으키게 만드는 심각한 것이었다. 방성칠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목사의 탐학(貪虐)이 중점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목사의 탐학이 도를 넘어선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익명의 궤서가 나붙으면서 민심이 크게 동요된다. 화전세·장전세(場田)·호포세(戶布稅)를 정수(定數)보다 훨씬 넘게 남징하고, 새 법에 따라 백성이 주관하게 된 사환곡(社還穀)을 제주 백성들이 정보가 어둡다고 목사가 마음대로 농단해 제주민중들의 원성은 쌓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 동지달, 세곡(稅穀)을 기한 냈겠다고 영문 아전들이 병장기 든 장교·나졸들을 데리고 마을을 덮칠 때 일을 생각하면 이가 갈립네다. 집집이 들이닥쳐 밥 끓여 먹는 무쇠술을 떼어가지 않나, 제기(祭器)를 뺏어가지 않나, 심지어 뒤주쌀을 퍼가질 않나, 참말로 그런 생난리가 없었어 마썸.”¹³⁾

“이렇게 죽은 지 석삼년이 되는 망자(亡者)도 호적에서 삭제해 주지 않아 호포세를 물어야 하고, 집안 노인이 육십이 넘어도 법대로 노제(老除)를 못 받으니 사내자식 많이 둔 집 패가망신하기 안성마춤입쥬.”

“허기진 백성들은 송깃대 벗겨 먹고, 영문의 사모 쓴 큰 도적, 병거지 쓴 작은 도적은 백성의 껍데기 벗겨 먹고……”¹⁴⁾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에 대한 묘사는 항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사회·경제적인 상황의 근거가 된다. 민중에게 부여된 세금은 산 자의 것만이 아니었다. 죽은 자의 것까지 호적에서 삭제하지 않고 부여하는 바람에 허기진 백성들은 극약처방이라고 할 항쟁을 일으키게 된다. 백성의 도리를 다하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혹독한 세금징수의 명령을 내리는 영문의 사모 쓴 큰 도적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각 지방에서 민중들을 가혹하게 억압하는 병거지 쓴 작은 도적들은 민중의 항쟁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제주도에서 목사와 관리들의 탐학, 과중한 세금 때문에 난리가 일어나는데도 나라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뿐더러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왕실의 무능과 무관심을 비판하는 다음의 대목에서는 민중들의 반봉건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이 답답한 사람아, 여태 잠자코 있다가 기껏 험다는 소리가 그거라? 나라에서 탐관오리를 징치하지 않으니, 우리 백성 손으로 다스릴밖에 더 있는가! 누구는 백성 된 분수를 헤아릴 줄 몰라 이러나? 자고로 조정에서는 이 섬이 수록 만리 변방이라 하여 전혀 안중에 없고 버리기를 똥 버리듯이 해오지 않았는가. 난리가 터져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 몇이 물고나야 나라님은 삼일 강아지 눈 뜨듯 내려본단 말이여. 난리를 일으키지 않으면 도저히 골수에 맺힌 이 원한을 알릴 길이 없는거라!”¹⁵⁾

13) 현기영, 앞의 책, 1983, 68쪽.

14) 위의 책, 69쪽.

15) 위의 책, 58쪽.

제주민중들은 백성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도민이 봉기해 그들의 상황을 고향 지경이 되어야 왕의 명으로 내려온 관리들의 탐학을 나라에서 알아준다는 인식은 제주민중에게 반봉건 의식과 운명공동체적 의식을 부여했다.

(2) 종교적 배경과 반외세

『변방에 우짖는 새』 곳곳에는 봉세관을 등에 업은 천주교도들에 의해 고통받는 민중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제주도에 입도한 구신부는 봉세관 강봉헌과 손을 잡아서 포교전략의 일환으로 천주교도를 봉세관 마름으로 쓰고, 세금을 탕감시켜준다. 구신부는 법국 신부를 ‘여아대(如我待)하라는 왕의 칙령과 법국 공사의 세력을 이용해 교세를 확장해 나간다. 교세가 번창할수록 폐단 또한 크게 늘어났다. 대부분 박해 속에 살아왔던 천민출신이 많았던 대부분의 교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갖은 패악을 저질렀고, 이런 행위는 민간신앙의 전통을 이어온 제주민중에게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교폐와 세폐는 표리일체가 되어 백성의 원한의 표적이 되었다. 때문에 세폐와 교폐로 인한 억압적 상황을 타개하려는 싸움은 자연스럽게 반봉건·반외세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다.

봉세관은 왕실 비용 마련에 혈안이 되어 백성의 소유인 이유지(里有地)까지 혈값에 팔아치웠고, 마을 아낙네들이 수백 년 동안 받아들여온 신목도 아무 기탄없이 교인들에게 팔아넘긴다. 교인들은 수백 년 묵은 팽나무를 베어 넘기면 미신 타파도 되고 값비싼 목재도 얻어 좋았다. 할망당 십여 군데가 교인들에게 파괴되었는데 대게 여드렛당이 수난을 당했다.

이재수관이 끝난 뒤 조사한 “정의군 천주교인들의 죄목 178건 중 21건이 신당이나 성황당을 불태우거나 훼손한 사건이었다. 이는 토착신앙과 문화를 파괴한 것으로 대단한 문화적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¹⁶⁾ 제주민들의 생활 속에 배어있는 신앙형태를

16) 김양식, 앞의 글, 2003, 64-65쪽.

교회가 이단으로 배격하여 문화적 갈등이 일어난 것이다. 천주교는 마을제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마을공동체의 전통신앙과 문화를 부정한다.

다음의 이재수 설화는 당시 교인들의 폐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선교 믿는 놈은, 요새 그뜨민 어느 불교라든지 예수교 이런 디가 조선심(慈善心), 조기가 복받을라고 호는 건디, 이건 세력을 주장호는 거라. 이 선곤 세력을 주장호니, 식상 간음 간통, 몰명훈(미련한) 것덜은 각시도 잃어 불췌. 확 빼어가민머 그만이라. 이런 늠덜이 휩쓸 땐디. 선교 믿엇다 호민원, 제주 목스 스톨 무섭지 안호거든. 성방이고 이방이고 삼만관숙이고 스령이고, 이견원 조기 므음대로 호는거라.¹⁷⁾

종교는 자비와 선을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천주교는 세력 확장에 주력을 했고, 교인들은 온갖 폐악을 저질렀으며 목사, 사또를 무서워하지 않고 “관장 알 길 이녁집 장남 부리 듯 호였”¹⁸⁾다고 한다. 설화 속에서 이야기되는 교인들의 모습은 작품 속에 그대로 반영된다.

“……아이고, 이런 원통힐 데가 어디 있이까? 시방 우리 집에 성교군 들이 들이닥쳐설랑 세금을 매긴다고 허질 았애여? 원, 시상에, 벌어먹지도 았은 화전 목정밭에 세금 나오니 이런 날베락이 어디 있는고? 그러면서 또 허는 수작이, 성교에 들면 세금을 반감해 주겠다고 꼬이지를 았애여? 원 께쌌헌 놈들. 조상 제사도 못 뒀시게 인륜을 끊어버리는 교를 어찌 믿느난 말이여……”¹⁹⁾

봉세관의 마음으로 활동하는 교인들은 마을사람들의 집에 들

17) 김승추 구연, 김영돈·김지홍 채록, 「이재수난 I」, 1901년 제주항쟁기념사업회 엮음, 「이재수야 이재수야, 신축제주항쟁자료집Ⅱ-문학편」, 각, 2004, 57쪽.

18) 김원형 구연, 진성기 채록, 「성당우력」, 위의 책, 24쪽.

19) 현기영, 앞의 책, 1983, 208쪽.

이닥쳐 막무가내로 세금을 매긴다. 세금을 내고 싶지 않으면 천주교에 입교하라는 수작은 조상제사와 같은 전통신앙을 부정하라는, 민중들의 곤궁한 생활을 발미로 한 협박이었다. 이는 민중들이 이어온 전통적인 삶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놓는 폭력이었기에 이재수란 진행과정에서는 교폐에 대항한 민중의 폭력성이 더욱 극렬하게 드러난다. 민중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강적이 봉세관과 성교군이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이 강적들이 손을 잡고 있는 형국이기에 민중의 고통을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무리하게 포교를 하는 가운데, 1901년 2월 정의군 하효리의 오신락 노인이 교당에 끌려가 죽는 사건이 터지면서 주민들의 천주교회에 대한 반감은 고조되었고, 세폐와 교폐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정군에서는 사설 상무사가 조직되어 교인들과 대립했다. 결국 1901년 5월 중앙의 조세수탈에 저항한 민회가 열리면서 항쟁은 시작되었고, 집전 끝에 5월 28일 제주성 내의 주민들에 의해 성문이 열리고, 민군이 제주성을 장악하여 교인들을 처단한다.

이재수는 “교인이라면 병든 노인까지 가차없이 뿔대에 못매달아 죽였다. 살기둥둥한 그의 눈에는 교인들은 이미 동족이 아니고 범국놈, 범국년이었”²⁰⁾던 것이다. 장두와 마찬가지로 민중들도 모두들 교인 살해에 적극적이었다.

외부에서 들어온 천주교와 제주의 민중이 맞부딪치는, 민속신앙과 외부신앙의 문화적 충돌은 항쟁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교세확장을 위해 봉세관과 손을 잡고 특권들을 무분별하게 행사한 포교방식의 문제가 민중들의 반감을 샀고, 오래 지속된 세폐에 교폐가 없어지면서 그 피해를 느끼는 민중의 강도가 커져 항쟁이 야기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항쟁이 생존권 투쟁과 외부세력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식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20) 현기영, 앞의 책, 1983, 292쪽.

주인들끼리의 살상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2) 항쟁의 성격에 대한 기억

제주도에서는 “고려말의 여몽연합군에 대한 삼별초의 항쟁, 매우 잦았던 왜구 침입에 대한 항쟁, 선교사를 앞세운 불란서 제국주의에 대한 항쟁, 해녀들의 항일투쟁, 그리고 8·15 직후 점령국인 미국에 대한 4·3, 그리고 중앙과 변방이라는 수탈구조 속에서 크고 작은 조세 저항운동도 빈발했다. 민중항쟁의 대의는 외세의 침노를 막고, 외세에 빌붙어 농간부리는 매관세력을 응징함으로써 공동체의 피를 정화시키는 것이었다.”²¹⁾

언로(言路)가 봉쇄되어 있던 제주 민중으로서는 항쟁이라는 집단행동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고난과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생존권 요구의 방법이었던 항쟁은 제주민들이 나라를 향해 그들의 고충을 고할 수 있는 언로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 역사가 보여주는 도민의 전투적 배타성은 강력한 외세에 대항한 약자로서의 부득이한 생존양식이었다.

『변방에 우짖는 새』는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고, 공동체적 삶을 무너뜨린 국가체제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언로를 차단한 군부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언로를 차단당하고 국가로부터 소외되어 오던 제주 민중들이 어떤 식으로 국가의 폭압에 대항하고 극복해 나가는지를 작품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민중들의 항쟁은 그래서 더욱 거침없고 당당하다.

현기영은 필화사건 이후 “4·3을 직접 못 쓰고, 그 역사의 비유로서 『변방에 우짖는 새』를 쓴”²²⁾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변

21) 현기영, 「소설에서의 역사의식」, 『젊은 대지를 위하여』, 화남, 2004, 152쪽.

22) 김동윤, 「작품을 쓰면서 울기도 했어. 텍스트 대담」, 제주작가회의, 『제주작가』 제22호, 심지, 2008, 71쪽.

방의 우짚는 새』는 4·3의 전사(前史)로써 제주의 항쟁 전통을 중점적으로 그려내 제주역사의 연계성을 탐구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제주민중들의 분노와 저항의식, 항쟁의 전통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1) 제주도민의 저항의식

제주도민의 저항의식은 어느 한순간에 드러난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에 의해 소외되어 온 변방의 오래된 불신, 진상(進上)과 과중한 세금, 제주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사리사욕만 채우던 경래관과 목사, 봉세관, 천주교 신부와 같은 외부인의 지배, 교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 양반에게 자신의 자식을 종으로 내주어야만 했던 가난함 등과 같은 찻찻이 쌓인 분노들이 요인이 되어 항쟁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역설적이지만 중앙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제주도는 항쟁을 통해서만 중앙의 눈길을 받을 수 있었으니, 항쟁의 전통으로 볼 때 제주도민의 저항의식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이간 이렇게 백성의 생업이 왜놈 해적들에게 빼앗기는 걸 보고도 나라에서는 당최 손을 못 쓰니, 생민을 안보치 못하는 나라가 어찌 나라라 할 수 있는가.”²³⁾

“이 사람, 듣자 하니 애국 열사 같은 소릴 해염고. 수륙 만리 떨어진 섬 중에 한갓 불개미 같은 농사꾼 신세로 나라에 무슨 은혜를 입었다고 나라 걱정인가. 원, 기가 막혀서. 제주섬 백성한테는 왜놈도 원수지만, 이씨조선도 원수여. 우리 제주는 자주 독립해야 하여!”²⁴⁾

제주에서 일어나는 항쟁은 관리의 탐학과 관권의 남용, 불합리하고 가혹한 조세, 권력과 결탁한 외부 세력 등으로 인해 일

23) 현기영, 앞의 책, 1983, 132쪽.

24) 위의 책, 133쪽.

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시 봉세관의 징세에 따른 불만으로 인해 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제주의 이재수란이 다른 지역에서는 보지 못할 만큼 큰 규모로 사건이 확대된 것은 교폐와 세폐가 결합된 국제적이고 복합적인 경향의 항쟁이었기 때문이다.

“성님! 시방 우리 섬 백성이 마주하는 강적은 들입네다. 봉세관과 성교군이 그것입쥬. 나라가 생민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봉세관을 내려보내 성교군과 야합시켜 침탈을 일삼는 마당에 백성이 살 도리가 있음네까? 업(業)을 잃고 굶어 죽을밖에. 굶어 죽으나 총칼에 맞아 죽으나 죽기는 매일반이라 마썸. 성님, 그렇지 않수과?”²⁵⁾

민중이 국가에 저항을 하며 항쟁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다. 무리한 세금의 폐단과 제주인의 공동체적 삶을 무너뜨리는 외세와 천주교가 유입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제주인이 이토록 격렬하게 저항할 리는 없을 것이다.

제주는 외부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온 공동체가 아니다. 제주는 주체적 주인의식을 가지고 역사문화, 생태를 보존해왔다. 탐라국 시절부터 독립국임을 표방해 온 제주도에는 자치적인 성향이 섬 주민 모두에게 뿌리박혀 있었고, 외부로부터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충격에는 배타적인 성향을 떨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작품 곳곳에서는 왜구에 대한 반감, 미국인 선교사에 대한 반감, 신부와 교인들, 봉세관, 목사 등에 대한 반감이 제주도민의 집합 기억으로 그려지고 있다.

한편, 강우백, 오대현은 유럽의 명망있는 지식인이었으나 백성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영웅 이재수는 천한 관노였고, 성문을 여는데 큰 공을 세운 개문(開門)장두들은 대개 만성춘 등 젊은 퇴기, 관기들이었다. 현기영이 주목한 것이 전도민이 함께 저항

25) 현기영, 앞의 책, 1983, 210쪽.

한 항쟁이었다는 점이라면, 성내·외 민중, 유림 양반, 군수, 천한 관노, 퇴기 등이 맹렬하게 싸운 이재수란은 전도민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인간해방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특히 제주섬의 최하층민들이 항쟁의 지도자로 나섰다 것은 제주민중의 외부에 대한 저항의식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며, 전 도민적 항쟁을 통해 구성원들 모두가 집단적 목표에 자발적으로 동원되어 역할을 담당했다는 정당성과 집단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2) 항쟁의 전통

제주에는 많은 민란을 경험했다.²⁶⁾ 작품에 묘사된 가난한 제주도민들의 삶은, 탐관들의 수탈과 교인들의 행패로 인해 빈궁한 생활에 허덕이는 민중들의 궁여지책이 바로 항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용문을 살펴보면, 항쟁의 전통이 민중들에게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참말로 강제검 하르방은 불세출의 영웅입쥬. 민란의 장두로 목숨바쳐 나오기도 어렵쥬만, 그 하르방걸이 빈틈없는 계획으로 수만의 삼읍 민인을 수족걸이 부러설랑 마침내 뜻을 관철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우파! 팔 년 전, 경인년 난리에 장두로 나섰다가 목

26) 1812년의 양계해 모변은 인사행정의 부조리와 수취체제의 문란을 배경으로 하면서 별국을 건설코자 했으나 동모자의 고발로 실패했다. 1862년 임술제주민란(일명 강제검의 난)에서는 대정 지역 화전민을 중심으로, 화전세와 군역의 폐단 시정을 요구하는 봉기가 있었다. 1890년 김지·이완평의 난에서는 탐관오리의 폐해에 항의하여 제주성을 점거하는 사건이 있었고, 1896년 송계홍·강유석의 난에서는 단발령에 반대하여 왜와 서양의 구축(驅逐)을 주장하는 봉기가 있었는데, 채구석에 의해 진압되었다. 1898년 방성철의 난에서는 마장세와 환곡제도의 폐단을 시정하며 제주성을 점령하는 큰 사건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봉기는 봉건체제에 대한 저항인데, 관리들의 수탈과 과도한 세금이 원인이었다(허남춘, 앞의 글, 2002, 77쪽).

숨이 아까운 나머지 백성을 배반하고 목사의 똥창에 붙어버린 김지라는 자는 애기혈 건덕지도 없는 호로새끼우다만은 재작년 난리에 장두로 나선 송계홍이를 생각하민 참말로 가슴이 아픡네다. 계책없이 분김에 울컥하여 졸속으로 일어났이니 삼읍 민인이 수이 물려들이기 있우파! 불 본 날벌레 신세입쥬. 군수 채구석에게 잡히어 관덕정 마당에서 사지를 찢겨 죽음을 당했이니 참말로 애통한 일이라 마썰.”²⁷⁾

공동체의 공동이익과 공동선을 해치는 외세의 침략과 중앙정부의 폭압에 대항하고, 안으로는 매판세력을 응징하여 공동체의 피를 정화시키기 위한 항쟁은 뜻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삼읍의 민중이 한마음으로 일어날 때 성공할 수 있다. 강제검의 난이라 불리는 1862년 임술제주민란은 대정지역 화전민을 중심으로 화전세와 군역의 폐단 시정을 요구하는 전도민적인 봉기였다. 이 난은 농민 중심의 저항운동으로 장기간의 적폐에서 비롯되었기에 수만 명을 동원해 목사 축출, 인부(印符) 탈취 시도, 인명살상 등 극렬한 행동이 수반됐다. 강제검은 민중의 기억 속에서 빈틈없는 계책으로 뜻을 관철시킨 영웅으로 인식된다. 임술제주민란 이후에도 각종 민폐에 대한 항쟁이 전개되었고, 항쟁을 겪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저항의식은 점차 성장하고 있었다. 방성철을 강제검과 동일시하면서 “우리가 구년지수에 해 기다리듯 강제검 걸은 장두가 나오기를 얼마나 기들렸우파?”²⁸⁾라 하는 데서 민중의 장두인식을 알 수 있다. 장두를 기억하듯 민중들은 배신자도 기억한다.

“이 사람, 까마귀 고기 먹었고. 이 년 전 그 원통헌 일을 밧썰 잇다니. 우리가 송계홍이를 따라 일어났을 적에, 우릴 처부신 장본인이 대정군수 채구석이 아니여? 두고 보라만은, 배신자 김지가 재작년 난리 때 맞아 죽었듯이 이번에도 그때 채구석의 앞잡이 노릇한

27) 현기영, 『변방에 우짚는 새』, 앞의 책, 1983, 67쪽.

28) 위의 책, 69쪽.

놈들 무사허든 못할 테니.”²⁹⁾

1890년 김지·이완평의 난 때의 배신자 김지는 1896년 송계홍·강유석의 난 때 맞아죽고, 1896년 난 때 채구석을 도와 장두 송계홍을 잡아 죽인 대정 포수 강박의 아들은 1898년 방성철의 난 때 도망간 아버 대신 붙잡혀 노한 군중 가운데서 무참히 밟혀 죽는다. 또한 1901년 이재수란에서는 세폐와 교폐의 구함과 함께 무술년의 난괴를 다스린다고 하여, 방성철란 당시 주성백성을 몰아 남학당을 쳤던 송대정, 홍정의 등의 처단을 요구한다. 항쟁에 참여한 민중들은 당시의 폐단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배신자까지도 기억하고 있다가 처단한다. 이는 항쟁이 각각의 사건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 민중의 삶 속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민중의 기억을 통해 이어지는 것임을 보여준다.

3) 항쟁의 주체에 대한 기억

『변방에 우짚는 새』에서 장두는 방성철과 이재수로 대표된다. 민중의 개별적인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는 항쟁에 대한 민중의 기억은 희생된 장두와 민인들을 불의에 항거한 불세출의 영웅으로 인식하고, 신성화한다. 민중들은 이재수를 민중의 욕구와 원한을 시원하게 갚아주는 영웅으로 생각했고, 방성철은 비범한 인물이긴 하지만 끝내는 민중을 배신하고 일본으로 도망가다 붙잡혀 죽은 사이비 장두로 인식한다. 때문에 이 절에서는 이재수를 중심으로 장두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민병과 개문(開門)장두들의 활약도 함께 다뤄보고자 한다. 항쟁의 주체는 장두만이 아니다. 민중들의 의지가 항쟁이 이루어지도록 만든 것이다.

29) 현기영, 앞의 책, 1983, 80쪽.

(1) 민중영웅 이재수

이재수란이라 일컬어지듯 1901년의 제주항쟁은 이재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변방에 우짖는 새』에서 이재수는 작품 후반부에 가서야 나타나고, 그에 대한 성장기나 일대기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는 이재수가 민중들의 기억 속에서는 항쟁을 이끌어나간 장두였지만, 그 또한 항쟁의 일원이었고, 민중 전체가 항쟁의 주체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현기영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재수란의 과정 속에서 오대현이 교인들에게 잡혀가고, 강우백이 장두로 나선 이후 동·서진으로 나누기 위해 새로운 장두를 선출하는 장면에선 약간의 의견차가 발생한다. 상무사의 집사로 항쟁에 참여한 이재수는 목숨을 다해 싸우는 장두가 되겠다고 나서고, 좌중이 내키지 않은 기색이자, 비분강개한 목소리로 항변한다.

“소인이 미친한 노예라고, 옳을 의(義)자를 위해 죽지도 못합니까? 난신 적자를 토멸하는데 어찌 반상의 구별이 있습니까?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노예 신분엔 가당치 않다면 노예가 상전을 위해 죽는 것도 안 됩니까? 잡혀간 오좌수 어른은 소인이 다년간 받들어 모신 상전이우다. 소인은 좌수 어른의 원수를 꼭 품앗이하고야 말겠소!”³⁰⁾

이재수는 의(義)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며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모시던 좌수 오대현에 대한 원수라도 갚겠다고 장두로 나선다.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굳건한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민당의 장두가 된 이재수는 서진을 맡아 지휘하는데, 용맹과 과단성, 그리고 잔인한 웅정으로 인하여 민중들 사이에 단연 영웅으로 자리잡게 된다. 유생과 토호가 지휘하는 강우백·오대현의 동진과 다양한 계층의 민중이

30) 현기영, 앞의 책, 1983, 264쪽.

주축이 된 이재수의 서진이 노선차이를 갖게 되면서 이재수는 점점 더 잔인한 장두가 되어간다. 이재수의 장두로서의 면모는 항쟁의 과정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부각된다.

입성 후 이재수가 두 신부를 치죄하는 대목에서는 “느이가 범국 왕의 명을 받들어 조선 내정을 탐지하러 온 첩자인 줄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³¹⁾라 하여, 신부를 프랑스의 첩자로 여기고 있다. 심지어는 신부를 ‘오랑캐로 흑세무민하는 무리’라고 할 정도로, 신부의 등장과 선교를 오랑캐(외세)의 침탈이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³²⁾

특히 “흉년에 좁쌀로 장리놀이를 하고 굶는 집 아이를 구휼한다고 데려가서는 평생 종으로 박아버리기 예사”³³⁾였던 악질 지주나, 혹독한 빚쟁이를 비롯해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양반들 등을 천한 관노 출신 이재수가 처단하자 민중의 욕구는 충족되었다. “장군님 덕분에 성교군이 씨멸족되었으니, 이제사 우리 섬 백성 허리 패와 살게 됐수다.”³⁴⁾라며 민중들의 이재수에 대한 추종과 믿음은 열광적이었다.

허위대가 걸출한 가라말 위에 높이 앉은 이재수는 붉은 비단옷 때문에 흡사 햇덩어리같이 눈이 부셨다. 스물한 살의 천한 하인 아이가 저렇게 일월같이 찬란한 영웅으로 탈바꿈할 줄이야! 한라산 정기를 타고난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한라산 아흔 아홉 골(谷), 골짜기 하나 모자라서 호랑이도 안 나고 인물도 안 난다는 이 섬에 비로소 사나운 맹호가 솟아난 것이다. 재수는 아이들 사이에선 이미 날개 달린 장수로 소문나 있었다. 워낙 행보가 빠르기로 이름난데다가 민병을 이끌고 주성을 향할 제, 민첩하게 사람들 어깨를 디디고 뛰어다니며 지휘한 것이 사실이고 보니 그런 소문도 있을 만했다. 양 겨드랑이에 나무 잎새만한 날개가 돋은 아기 장수들, 혹시 나라에 역적이 될까 두려워 인두불로 지저

31) 현기영, 앞의 책, 1983, 329쪽.

32) 허남춘, 앞의 글, 2002, 95-96쪽.

33) 현기영, 앞의 책, 1983, 11쪽.

34) 위의 책, 327쪽.

버리거나, 땀으로 눌러 죽었다는 전설이 과다한 고장이었다.³⁵⁾

「이재수 실기(李在秀 實記)」³⁶⁾에서는 “재수(在秀)는 키는 작아 봉신연의상(封神演義上) 토행손(土行孫)을 비록 짝하였으나, 그의 걸음은 저 수호지(水湖志) 일행팔백리(日行八百里) 걸음 걷는 신행태보 대종(神行太保戴宗)을 능(能)히 압두(壓頭)할 만하며, 불의의 일(不義之事)을 보면 수화중(水火中)이라도 기어(期於)이 구원(救援)하여 내고야 마는 용기(勇氣)”³⁷⁾를 가진 인물로 표현된다.

현기영은 김윤식의 『속음청사』뿐만 아니라 마을 촌로들의 증언이나 이재수 설화 등을 참조하여 이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 구전의 와중에 이재수에 대한 영웅화와 신성화가 이루어진데다 문학적 형상화의 과정에서 더욱 당당한 민중의 장두로 그려진 듯 하다.

대정민(大靜民)이 모두 모였을 때 사람들이 모두 장두(狀頭)되기를 피하려고 하여 여러 민중이 제수(濟秀)를 띄어 장두(狀頭)로 추천하였다. 나이는 21세인데 어리석고 우둔하여 지각이 없고, 성격이 살인을 좋아하여 교인(敎人)을 잡아들일 때마다 조사하여 물어보지도 않고 죽여버리는데 죽인 게 너무 많았다. 그의 무리중에 난폭하고 방종(放縱)하기 좋아하는 자들은 모두 그에게 따라다녔다.³⁸⁾

『변방에 우짖는 새』에서는 그의 영웅적인 면모를 그려내는데 반해 「속음청사」에서는 어리석은 젊은이를 장두로 띄어내어

35) 현기영, 앞의 책, 1983, 327쪽.

36) 「리제수실기(李在秀 實記)」는 이재수의 누이인 이순옥이 구술하고, 조무빈이 기록하여 1932년에 일본 오사카의 중도문화당(中道文化堂)에서 발간되었다. 이재수란을 문자로 기록한 최초의 발간물이다.

37) 이순옥 구술·조무빈 기록, 「이재수 실기(李在秀 實記)」, 1901년 제주항쟁기념사업회 엮음, 「이재수야 이재수야; 신축제주항쟁자료집Ⅱ-문학편」, 각, 2004, 90-91쪽.

38) 김윤식, 「속음청사」, 1901년 제주항쟁기념사업회 엮음, 「신축제주항쟁자료집Ⅰ」, 도서출판 각, 2003, 106쪽.

민란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김윤식이 유배온 뒤 제주에서 일어난 민란을 겪으며 제주민중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에 반하는 봉기를 정당한 항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그 주도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³⁹⁾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시각의 차이는 당시 사건의 장두 역할을 했던 이재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민중의 입장에서는 반봉건·반외세를 외친 근대적 인물로, 천주교측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박해자로, 양반측에서는 어리석고 살인을 좋아하며 국가에 반발하는 자로 인식하는 등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박정석에 따르면, “기억과 망각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둔 공동체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⁴⁰⁾한다. 이재수란에 대한 기억들이 이재수의 영웅화에 맞추어져 있는 것은 불편한 기억을 현재에 이롭게 재해석하려는 일종의 합리화 방식이라 볼 수 있다.

현기영은 이 합리화 방식에 의해 「속음청사」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된 이재수의 괴팍하고 살인을 좋아하는 좋지 않은 성정은 영웅적인 면모로 변화시키고, 잔인함은 용감함으로, 외세나 천주교에 대한 극도의 반감은 제주에 대한 극적인 충정과 민중에 대한 애정으로 합리화하여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현기영은 제주섬의 영웅들에 대해 “차별정책이 자심했던 변방

39) 김윤식은 제주에서 일어난 민란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아마도 종전에 이 섬의 민요장두(民擾狀頭)라는 게 모두 억지로 꺾박하여 채워놓은 자이고, 그 밑에 집사(執事) 수십명이 마음먹은대로 위복(威福)을 했던 것 같다. 매번 한번 소동이 지나면 장두(狀頭)는 결국 죽었으나, 이 (집사) 무리들은 홀로 살아남았다. 그리고서 걸핏하면 바로 소요를 일으키기를 능사로 삼으니, 성격이 또한 흉포·완악하고 특출·건방져서 조정(朝廷)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무리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난은 그칠 때가 없을 것이다.”(김윤식, 앞의 글, 2003, 143-144쪽).

40) 박정석, 「전장의 공간에서 ‘주변인’으로서의 전쟁체험」, 김경학 외, 『전쟁과 기억』, 한울아카데미, 2005, 116쪽.

땅에서 영웅이 탄생한다는 것은 나중에 항쟁을 주도하다가 처형되고 마는 역적의 탄생이나 다름없다. 관권의 칼날에 죽고 마는 전설속의 아기장수들은 항쟁을 주도하다가 예외없이 죽음을 당했던 비극적인 영웅들을 상징한다. 저 한 몸 바쳐 만인을 살리고자 했던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살신성인한 영웅이요, 성인이었⁴¹⁾다고 생각한다.

현기영은 이재수라는 인물을 민중의 기억을 통해 복원해 교폐와 세폐 속에서 생존권적 싸움을 해야 했던 한반도의 제3국인 제주도의 역사를 문학적으로 재현했다.

(2) 민병과 개문(開門)장두

이재수란 당시 항쟁에 참여한 이들은 하나같이 세폐와 교폐로 피해를 입은 민중들이었다. 항쟁의 주체는 어느 개인이 아니라 전체 민중이다. 항쟁의 선두에 나선 장두, 장두를 따라 교인들과 신부들의 처단을 담당했던 민병들, 교인들과 민병들 사이에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다가 생존권 투쟁적으로 일어난 성안 백성들은 모두 항쟁을 담당하는 주체들이다. 제주도민 전체의 생존권적 문제였기에 하나가 되어 저항한 것이다.

“사또! 시방 이장두가 한 말이 저 일만 회민의 목소리임을 명심 하십서. 이장두나 내나 아무리 무지하고 완명(頑冥)하기로 큰 화란 이 목전에 닥친 줄 왜 모르겠소? 왜 법국 군함이 두렵지 않겠소? 회민이 일만이라도 개미떼가 태산을 움직이겠습니까? 영감님 말씀 대로 강화하는 일 밖에 타개책은 없읍조. 허나 강화는 장두 임의대로 못합니다. 저 분기 충천한 일만 회민을 봅서. 광양촌에서 열세 명의 피를 본 뒤로는 모두 눈이 확 뒤집혀 진격 명령을 내려달라고 여간 아우성이 아니우다. 벌써 뒷전에서 교인 둘이 살해될 모양인데, 이런 판국에 장두란 자가 강화 두 자를 들고 나올 수가 있우파? 당장 물매 맞아 죽지, 살지 못합니다. 십여 년 전 난리에 장두 김지가 왜 백성들한테 맞아 죽었우파? 저 회민들을 통솔하자면 장

41) 현기영, 「소설에서의 역사 의식」, 152-153쪽.

두도 똑같이 미치지 않으면 안되어, 마썸!"⁴²⁾

항쟁은 이미 장두의 명령으로 진압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강화박에 타개책이 없음에도 장두들은 민중의 분노와 원한을 알기에 멈출 수 없다고 한다. 교폐와 세폐를 타파하기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어 목숨을 걸고 일어난 만큼 그 폐단이 혁파되기 전에는 물리칠 수 없는 것이다.

죽은 자는 비단 교인뿐만 아니었다. 악질 지주, 혹독한 빚장이, 소악패, 불효막심한 자, 간음한 자 등 악종이란 악종은 내친김에 멸종시켜야 한다고 연달아 돛대 끝에 매달았다. 이재수는 양반들까지도 사정 두지 않고 여럿 죽였으니, 백성들의 통쾌함이란 비길 데 없었다. 백성들은 차체에 장두의 손을 빌어 뼈아픈 원한을 풀고자 너도 나도 못된 양반들을 엮어다 바치는 것이었다. 전곡을 꾸어 주고 변리를 터무니없이 받아 내는 자, 빚값에 남의 처자를 빼앗은 자, 마을 깃돈을 떼먹은 자, 백성의 선산에 억지로 투장(投葬)한 자…… 모두가 이 천한 관노 앞에서는 파리목숨이었다. 최질에 따라 흉악범은 이재수가 직접 일본도로 찢러 죽이기도 했다. 장대(將臺) 높이 버티고 선 이재수의 불감사 전복은 활활 타는 불꽃처럼 휘황찬란했다.⁴³⁾

주성으로 입성하지 못한 동·서진은 교인색출에 열을 올린다. 성을 칠적마다 대여섯 명씩 피해를 입는 민병들은, 대신 교인포로를 죽여 분풀이하곤 했는데, 50명이 떼죽음을 당하자 민병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붙잡힌 교인들은 만중(萬衆)이 환호하는 가운데 숨지고, 동진에서 무죄하다고 놓아준 교인들도 민병들이 몰래 서진으로 끌고 가 이재수의 손을 빌어 죽이는 일이 생긴다. 오대현과 강우백이 옥석을 가려 죄 있는 자만 죽이라고 극구 타이르지만, 이재수와 서진 집사들은 막무가내로 듣지 않는다. 차체에 범국 종자는 마른 이 죽이듯 죽여 없애야 한다는 것

42) 현기영, 앞의 책, 1983, 284쪽.

43) 위의 책, 299-300쪽.

이다. 민병들은 항쟁의 원인이 되었던 교인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뼈아픈 원한을 풀고자 양반들까지 처단한다.

한편, 현기영은 회곡 「변방에 우짖는 새」에서 방성칠란 직후부터 이재수란의 전개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사건중심이었던 소설보다 인물중심으로 하여 더욱 생생한 제주민중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퇴기 만성춘이 제주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교인들 때문에 성내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민당에 대항하다가 개문장두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

개문장두는 성내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민당이 성내 주민들에게 개문하거나 오적을 내치지 않으면 교인들과 함께 진멸할 것이라는 쪽지를 보내자, 양식이 동이 난데다 교인들의 차별처우에 저항한 여성들이 나선다. 돼지 장수 아낙네들, 신부를 철천지원수로 삼는 무녀들, 그 외에도 만성월(滿城月)·만성춘(滿城春)·상절(相節)·모제비(母齊飛)와 같은 퇴기들, 육십난 노파로 제일 연상인 쟁반두리, 삼도리 경민장인 이언방(李彦方) 처 등이 개문장두로 활약한 이들이다.

성안 민심은 크게 동요되었다. 바야흐로 주성이 전장터로 화하였으니, 어찌 처신해야 옳을꼬? 난리 날 때마다 독 틈에 약탕관 격으로 끼어서, 관령을 따르자니 성 밖 민당의 보복이 두렵고, 민당에 내용하자니 관령이 무섭더니, 이번에는 민당과 교당 사이에 처하여 호되게 곱경을 치를 판이었다. 더군다나 지난 방성칠 난 때 주성 남정네들이 창의소 의용군이 되어 남학당을 쳤으니 차제에 처신을 잘못 했다간 큰 보복을 당할 것이 뻔했다. 어찌 할까? 과연 처자를 사지(死地)에 버려둔 채 성 밖에 나가 민당에 가담해야 옳을까?⁴⁴⁾

성내 주민들은 처음에는 교인들이 무서워 그들과 함께 불침번을 서며 민당에 대항하지만, 교인들은 성내 주민들에게는 무기를 내주지 않으며 차별을 둔다. 성 밖의 민당과 성안의 교인들

44) 현기영, 앞의 책, 1983, 273쪽.

사이에서 피해를 입어야 했던 성안 주민들의 상황은 토벌대와 경찰 사이에서 이중고를 당해야했던 4·3당시의 제주인의 모습과 겹쳐진다.

주목할 만한 항쟁주체로 대정군수 채구석⁴⁵⁾을 들 수 있다. 그는 작품 속에서 유배인, 민중, 관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는 인물이다. 그는 각 계층과 두루두루 관계를 맺으면서 각각의 상황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특히 항장 오대현과 함께 상무사를 조직⁴⁶⁾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통인 이재수를 집사로 들여 줄을 대고 민중들의 뜻이 인명 피해 없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는 항쟁이 진압되는 동안 난민 측과 제주목사 사이를 오가며 유혈충돌과 항쟁의 확산을 막고, 신부의 보호 등에 진력을 다했다. 민중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항쟁의 이면에서 노력했던 채구석이 감금되자, 채구석의 석방을 조건으로 배상금을 물겠다고 나선 것은 제주민중들이었다. 이재수란에 대해 프랑스 공사는 터무니없는 배상을 요청했는데, 곤궁에 처한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이자는 붙어났고, 마침내 1904년 6월 제주도민 4만여 명은 흔쾌히 채구석과 공범임을 자처하고 돈을 모아 탁지부에 낸다.⁴⁷⁾ 여기에서 채구석에 대한 민중의

-
- 45) 채구석은 1893-1896년 제주관관, 1896-1901년까지 대정군수 직을 8년여 간 수행하면서 실학사상을 전수받은 유학자로서, 천제연 물을 끌어올려 논밭을 일군 개척자이다. 소설 속에서 상무사의 사업은 '중문천을 끌어다 수만 평의 메마른 밭을 논으로 바꾼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관직에서 물러난 뒤 연구를 거쳐 성공했다.
- 46) 김재현이 구연한 설화 「이재수」에는 채구석이 상무사를 조직하고, 천주교 믿는 자들이 불량하니 자신이 책임자가 될 것이고, 도민 전체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채구석이 민란의 선도자, 즉 주모자라는 것이다(김재현 구연, 현용준·고광민 채록, 「이재수(李在秀)」, 1901년 제주항쟁기념사업회 엮음, 『이재수야 이재수야: 신축제주항쟁자료집Ⅱ-문학편』, 각, 2004, 47쪽).
- 47) 대정백성이 전부 배상금을 호(戶) 배당으로 수렴하여 채구석을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돈을 갚아주었다는 내용이 있다.(김재현 구연, 현용준·고광민 채록, 위의 책, 2004, 55쪽).

신의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며, 제주 민중들은 시작에서 종결까지 자신들의 의지로 항쟁을 전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마무리

현기영은 『순이 삼촌』(1979), 『아스팔트』(1986), 『마지막 테우리』(1994) 등에서 4·3의 비극을 다루고, 『변방에 우짖는 새』, 『바람 타는 섬』(1989)에서는 4·3의 전사(前史)로써 제주역사에 대한 문학적 모색을 해온 바 있다. 『변방에 우짖는 새』에서는 제주 항쟁의 전통을 방성칠란과 이재수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민중의 시각에서 제주역사의 의미를 찾으며 4·3과의 일정한 연계성을 일궈나가는 작가의 작품들은 항쟁의 정통성을 찾고 있으며 이는 작가의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현기영이 그려내는 민중의 기억은 단순히 즉자적 체험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집단기억은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 급조되기보다 물질적·상징적 형식을 통해 보존되어온 전승을 원천으로 삼는다. 이 원천에는 오랜 시간의 양분이 농축되어 있다. 민중의 기억은 그들이 겪고 있는 역사의 문제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대한 성찰의 방향을 드러낸다.

과거의 진실이란 재현작업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이 복원하고 발굴해내는 만큼 의미를 갖는 것처럼, 진실이란 단지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구성해낸 사실인 것이다. 현기영은 『변방의 우짖는 새』로 묻혀져 있던 역사를 새롭게 발굴 복원하고, 민중의 기억을 통해 항쟁의 현장과 제주민중을 문학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제주 역사연구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이 글에서는 『변방에 우짖는 새』를 중심으로 민중의 기억을 항쟁의 배경, 항쟁의 성격, 항쟁의 주체 등으로 나누어 분석했

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방에 우짖는 새』에는 공식역사에서 배제되었던 제주의 방성칠란과 이재수란에 대한 민중의 기억이 드러나 있다. 민중의 기억을 통해 바라보는 역사적 사건은 엘리트중심주의의 역사적 시각에서 민중적 입장으로 전환해 바라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찰해 볼 가치가 있다.

둘째, 항쟁의 배경 중 사회·경제에 대한 기억에서는 당시 나약한 국가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세계의 문제로 민중들에게 영향을 끼쳤음을 살펴보았다. 민중들은 관리들의 수탈에 의해 고통 받고 나라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 극약이라고 할 항쟁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전도민이 일어나 고할 때에야 나라에서 알아준다는 인식은 제주민중에게 반봉건 의식과 운명공동체적 의식을 부여했다.

셋째, 종교에 대한 기억에서는 이재수란의 중심에 천주교가 중점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유입된 봉세관과 천주교회의 세력화 과정이 빚어낸 항쟁의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반외세적인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항쟁의 성격에서는 제주도민의 저항의식과 항쟁의 전통이 민중의 기억을 통해 전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공동체의 공동이익과 공동선을 회복하기 위한 제주의 항쟁은 전계층이 참여함으로써 인간해방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제주섬의 최하층민들이 항쟁의 지도자로 나선 것은 제주민중의 저항의식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변방에 우짖는 새』는 4·3의 전사(前史)로써 제주의 항쟁 전통을 중점적으로 그려내 제주역사의 연계성을 탐구하고 있다.

다섯째, 항쟁의 주체에서는 이재수를 민중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보았다. 차별정책이 심했던 변방 땅에서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나섰던 천한 관노 출신 이재수는 당당한 민중의 장두로 기억된다. 또한 민병과 개문장두, 채구석 등 제주도민 모두가

항쟁의 주체로 활약했음을 살펴보았다.

여섯째, 현기영은 민중의 시각에서 제주역사의 의미를 찾으며 촌로들의 증언과 이재수 설화를 문학화함으로써 항쟁의 현장과 제주민중을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 역사적 사건을 문화적으로 재현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으며, 묻혀져 있던 제주역사연구에 박차를 가한 것은 『변방에 우짖는 새』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민중의 기억, 역사소설, 『변방에 우짖는 새』, 현기영, 이재수란, 4·3의 전사(前史)

■ 참고문헌

- 고명철, 「변방에서 타오르는 민족문학의 불꽃」, 『쓰다의 정치학』, 새움, 2001.
- 권인혁, 「19세기 제주도민의 생활상과 민란 추이」, 1901년제주항쟁기념사업회 엮음, 『진실과 화해』, 각, 2003.
- 김동윤, 「신축제주항쟁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과 그 과제」, 1901년제주항쟁기념사업회 엮음, 『이재수야 이재수야; 신축제주항쟁자료집Ⅱ-문학편』, 각, 2004.
- 김동윤, 「작품을 쓰면서 울기도 했어-텍스트 대담」, 제주작가회의, 『제주작가』제22호, 심지, 2008 가을.
- 김양식, 「1901년 제주항쟁의 발생과 전개과정」, 1901년제주항쟁기념사업회 엮음, 『진실과 화해』, 각, 2003.
- 김영범, 「집단 학살과 집합 기억」, 『제주 4·3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1999.
- 김영범,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사회과학연구』제6집 제3호,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9.
- 김영화, 「제주 역사와 문학」, 『변방인의 세계』, 제주대학교출판부, 2000.
- 김옥희, 『제주도신축년교난사』, 태화출판사, 1980.
- 김윤식, 「속음청사」, 1901년제주항쟁기념사업회 엮음, 『신축제주항쟁자료집』I, 각, 2003.
- 민현기, 「역사적 하강기의 불행한 삶」, 염무웅 편, 『한국문학의 현단계』Ⅲ, 창작과비평사, 1984.
- 박정석, 「전장의 공간에서 ‘주변인’으로서의 전쟁체험」, 김경학 외, 『전쟁과기억』, 한울아카데미, 2005.
- 박찬식, 「방성칠란과 이재수란의 주도세력에 관한 새로운 자료」, 『탐라문화』제16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6.2.
- 박찬식, 「한말제주지역의 천주교회와 ‘濟州教案」, 『한국근현대

- 사연구』제4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996.
- 이동하, 「역사적 진실의 복원」, 『작가세계』, 세계사, 1998, 봄.
-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 전진성, 「기억의 정치학을 넘어 기억의 문화사로」,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6, 가을.
- 정진각, 「1901년 제주민란에 관한 일고」, 『한국학논집』, 한양대한국학연구소, 1983.
- 정호웅, 「근본주의의 역사적 의미」, 『작가세계』, 세계사, 1998, 봄.
- 정호웅, 「한국문학과 극단의 상상력」, 『한국문학의 근본주의적 상상력』, 프레스21, 2000.
- 조성윤, 「기억의 현재성-제주민중과 이재수 난」, 1901년제주항쟁기념사업회 엮음, 『진실과 화해』, 각, 2003.
- 채광석, 『민족문학의 흐름』, 한마당, 1987.
- 최원식, 「현기영의 역사소설」, 『우리시대 우리작가』22, 동아출판사, 1987.
- 허남춘, 「설화·전·소설에 수용된 제주 민중항쟁과 이재수」, 『반교어문연구』제14집, 반교어문학회, 2002.
-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창작과비평사, 1983.
- 현기영, 『바다와 술잔』, 화남, 2002.
- 현기영, 『젊은 대지를 위하여』, 화남, 2004.
- 『진실과 화해』, 1901년제주항쟁기념사업회 엮음, 각, 2003.
- 『신축제주항쟁자료집』I, 1901년제주항쟁기념사업회 엮음, 각, 2003.
- 『이재수야 이재수야, 신축제주항쟁자료집Ⅱ-문학편』, 1901년제주항쟁기념사업회 엮음, 각, 2004.

〈Abstract〉

The popular memory represented in Howling Bird in the Border

Kim Soo-Mee

This study analyzes the popular memory into the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subject of the resistance centered on a historical novel, *Howling Bird in the Border* written by Hyeon Gi Yeong.

Firstly, this novel displays the popular memory about the Bang Seong Chil uprising and Lee Jae Su uprising. Those incidents are excluded in formal history.

Secondly, this study about memory of society and economy examines the fact that the weak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country affects on the people suffering from a tax burden in those days.

Thirdly, we can find the character of anti-external circumstances of Jeju people in the memory about a religion. The Roman Catholicism is important matter in that uprising.

Fourthly, in the characteristic of the resistance, this study examines that the sense and the tradition of resistance of Jeju people is handed down through the memory of people. This novel searches the link of Jeju history describing the tradition of resistance as the prehistory of Jeju 4·3 incident.

Fifthly, in the subject of resistance, the recognition of the people about Lee Jae Su is revealed.

Sixthly, Hyeon Gi Yeong describes vividly the set of resistance and Jeju people in the viewpoint of people. This novel has meaning at the role of pioneer in the historical novel and in spurring the study about the hidden Jeju history.

Key Words : popular memory, historical novel, Howling Bird in the Border, Hyeon Gi Yeong, Lee Jae Su uprising, prehistory of Jeju 4 · 3 incident